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북동부 진출과 동해의 지정학적 의미*

이영형**

| 목 차 |

I. 들어가는 말	동부
II. 유라시아 동부지역 및 동해에 대한 지정학적 가치	2. 러시아의 남진정책과 북한의 북동부
1. 유라시아 동부지역에 대한 지정학적 가치의 변화	IV. 동해의 지정학적 성격, 갈등의 무대?
2. 동해와 북한 북동부에 대한 지정학적 가치	1.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지정학적 구획
III.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북동부 진출 현황	2. 대륙 및 해양세력 블록내의 내재적 갈등
1. 중국의 동진정책과 북한의 북	V. 끝맺는 말

| 논문요약 |

본 글은 지정학적 관점에서 동해의 갈등구조를 해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중국과 러시아의 동진 및 남진정책은 북한의 북동부 및 동해에 자신들의 이익선을 설정하고, 북한의 항구를 통해 동해를 안정적으로 통제 및 관리하는데 있다. 대륙세력의 이러한 움직임에 맞서 해양세력의 대응전략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지정학적 전략이 북한의 정치행위에 대한 대응전략 차원에서 추진된다고 지적되지만, 그 내면의 모습은 대륙세력의 영향력 확장에 대한 해양세력의 봉쇄정책이다.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1-362-H00001). 본 글은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주최로 실시된 2013 HK International Conference <East Sea Rim Network and Institutionalization>(14 November, 2013)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하였음.

** 경희대학교 러시아학과 대우교수.

권 확보 움직임을 지지하는 현상 역시 대륙세력의 영향력 확장에 해양세력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지정전략으로 인식된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북동부 및 동해 항구의 관할권 문제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중국의 북한 북동부 진출은 동해로의 출구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중국은 북한의 동해를 자신의 내해로 사용하려 한다. 이러한 현실에 위협을 느낀 러시아가 북한과의 철도 연결 및 나진항 보수 공사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러시아는 나진항을 자신의 물류기지로 이용하려 한다. 해양세력인 한국과 일본관계 역시 동해를 갈등의 무대로 만들어 가고 있다. 동해에 대한 지명표기, 독도 영유권, 그리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 등을 놓고 발생하는 갈등구조가 동해의 지정학적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동해의 지정학적 성격이 변화되고 있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지정학적 전략이 동해를 상하로 양분시키고, 양분된 해양 공간 각각이 또 다시 분열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양분된 상부지역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이권경쟁이 동해의 지정학적 성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고, 동해의 남부지역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갈등관계가 동해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환동해 안보협의체 구성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주제어: 중국의 동진정책, 러시아의 남진정책, 북한의 북동부, 동해의 지정학적 의미, 환동해 안보

I. 들어가는 말

지난 20세기까지 국제정치경제의 중심지는 유럽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을 대신해서 미국이 해양세력을 관리하기 시작했고, 해양세력을 관리하는 미국과 대륙세력을 관리한 소련의 힘이 지구촌을 양분했다. 미국과 소련의 지정전략이 유럽에서 맞닿아 있었고, 동일 지역에서 긴장관계를 연출했다. 이러한 모습은 2000년을 전후한 시기까지 큰 변화 없이

지속되었다. 동일시기 동안에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간 갈등 상황이 조성되었지만, 이러한 갈등이 유럽 중심의 국제정치 구조를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미국과 소련의 주된 관심 지대가 유럽이었고, 여타 지역에서 발생한 국가간 갈등이 유럽의 그것에 흡수되어 버린 결과로 인식된다.

소련의 해체와 함께 해양세력인 미국의 독무대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기간 동안 소련을 대신해서 또 다른 대륙세력인 중국의 힘이 국제무대에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국제정치경제의 중심축이 유럽에서 아시아·태평양으로 이동되기 시작했다. 대서양에서 인도양을 넘어 태평양으로 이동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남진 및 동진정책이 서해와 동해를 지나 태평양으로 향하고, 러시아의 남진정책 역시 북한의 북동부 지역 동해 연안에 닿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그동안 해양세력이 관리해 오던 동해 및 서해에 대한 지정학적 가치를 변화시키고 있다. 대륙세력의 동진 및 남진정책에 대한 해양세력의 대응전략이 분주히 움직이면서, 동해와 서해에 대한 지정학적 가치와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정치행위 변수가 한반도 주변 4강을 서해와 동해로 끌어들이고 있다. 서해지역에서 구사되는 강대국의 지정전략에서 러시아가 역외자로 남게 되지만, 동해에서 전개되는 지정전략적 행위에는 한반도 2개 정부를 비롯하여 주변 4강 모두가 포함된다. 대륙세력이 동진과 남진정책을 통해 북한의 북부지역에 안착하고, 북한의 북동부 항구를 통해 동해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중국은 동해를 자신의 내해로 활용하려 한다. 동해 해상 공간이 세로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에 의해 양분되고, 양분된 남쪽 지역에서 해양세력인 한국과 일본에 의해 또 다시 양분되는 모습을 보인다. 물론, 양분된 북부지역에서 대륙세력인 중국과 러시아의 힘겨루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본 글은 국제정치경제의 중심축이 아시아·태평양으로 이동되면서 나타나는 동해의 지정학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으로 한다. 동해의 지정학적 의미를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이 북한의 북동부 지역이기 때문에, 동일지역을 논의의 중심에 위치시킨다. 제Ⅱ장에서는 유라시아 동부지역 및 동해에 대한 지정학적 인식의 문제를 방법론 및 문제

제기 차원에서 다룬다. 한반도를 포함하는 유라시아 동부지역에 대한 지정학적 인식의 변화, 그리고 동해와 북한의 북동부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다룬다. 제Ⅲ장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북한 북동부 진출 현황을 정리하면서, 동해의 지정학적 의미가 변화되는 정치 환경을 조사한다. 제Ⅳ장에서는 동해의 지정학적 성격을 갈등의 무대로 설정하고, 그러한 갈등 구조를 해석한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에 의해 동해가 양분되는 지정학적 구획의 문제를 다루고, 그 다름으로 동해에서 예상되는 대륙 및 해양세력 블록내의 내재적 갈등 문제를 정리한다.

상기 내용을 분석하는 본 글의 주된 흐름에는 미국의 해양력과 그 영향력이 유라시아 동부지역에서 강력히 침투되고 있음을 기본 전제로 하고, 그러한 영향력이 대륙세력의 팽창정책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지정학적 현상과 안보불안 요인에 대한 해양세력의 대응 문제를 다룬다. 동해 및 북한 북동부 지역이 갖는 경제적 성격 문제 역시 지정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으로 한다. 동해 및 북한 북동부에서 추진되는 각종 경제행위를 기업체가 아니라, 국가의 관점에서 해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서, 지정학 문제를 지정학의 하부 영역에 포함시켜 해석한다.

Ⅱ. 유라시아 동부지역 및 동해에 대한 지정학적 가치

1. 유라시아 동부지역에 대한 지정학적 가치의 변화

1) 20세기 전후시기의 지정학적 의미

19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시작되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구체화된 일본의 지정학 흐름에서 유라시아 동부지역에 대한 지정학적 성격이 찾아진다(이영형 2006, 260-262). 일본은 미국 페리 제독의 무력시위 앞에

굴복하여 1854년 문호를 개방하게 된다. 이와 함께 아시아 대륙의 혼란을 이용해 패권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일본은 1868년의 명치유신 이후 부국강병(富國強兵)을 슬로건으로 내세웠고, 1880년대 후반에 군부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주전론이 지배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일본은 자신의 주권선과 이익선을 생각하고 있었다.¹⁾ 내각 총리대신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의 의회 시정방침 연설(1890.12)에서 주권선과 이익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국가 독립자위의 길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주권선(主權線)을 수호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익선(利益線)을 보호하는 것이다. 주권선이란 강역(疆域)을 말함이요, 이익선이란 주권선의 안위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 구역을 말하는 것이다.²⁾

주권선은 일본 영토의 경계선을 지칭하며, 자국의 국내 영토를 수호하는 국경선 방어를 의미한다. 그리고 자신의 영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익선이 필요했다. 본토의 안위와 밀접하게 관계되는 지역을 방어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열강들 가운데 일본 본토를 침입하려는 국가는 없었지만, 이익선을 확보하지 않는 한 본토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익선에서 국가 행위가 충돌하게 될 경우, 일본의 국가안보 상황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자국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책임을 느끼고 이를 배제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무력을 사용해서 일본의 의지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익선에 관련된 야마가타 의견서의 초점은 동해를 포함하는 한반도에 있다.

일본에서 연구된 지정학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충돌 문제를 기초로

1) 구니마츠 히사야(國松久弥)는 『지정학과 동양공영권의 제문제』(1944년 1월 판)에서 핵심권과 배양권의 개념으로 주권선과 이익선을 설명하고 있다.

2) 야마가타는 시정 연설에서 이익선에 해당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집필한 『外交政略論』에서 일본의 이익선이 조선으로 규정되어 있다. 동해는 자연스럽게 포함된다. 이는 당시에 러시아가 시베리아 철도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철도가 완성되면 조선의 정치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논리였다.

하고 있다. 우치다 료헤이(内田良平)는 1901년의 『러시아론』에서 세계사를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투쟁으로 일반화하여 설명하고자 했다. 해양세력인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해야 하는 당위성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시아 국가 사이의 우두머리 다툼이었던 1894년의 청·일 전쟁이 발발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대륙 공간에 한쪽 날개를 펼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조선반도에 대한 포기할 수 없는 이권 경쟁이 1904년 러·일 전쟁으로 확산되었다. 러·일 전쟁은 미국의 중재로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1905년 9월)되면서 종결되었지만 일본의 승리였다. 러·일 전쟁은 일본의 대륙정책과 러시아의 남하정책이 충돌한 전쟁이었다. 러시아로 대표되는 대륙세력과 일본이라는 해양세력의 충돌이었다. 그리고 일본은 1910년 한반도를 병합하면서 동해를 자신의 수중에 넣었다. 이와 함께, 한반도를 포함한 유라시아 동부지역이 전쟁에 휩싸였다.

2) 21세기의 지정학적 의미

브레진스키(Z.Brzezinski)는 1997년에 출간한 『거대한 체스판』(The Grand Chessboard)에서 유라시아 주변부에서 지정학적 추축지대(Pivot area)가 형성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³⁾ 추축지대(Pivot area)란 강력한 국제정치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집중되면서 대립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지정학적 추축지대는 자신의 힘과 동기로부터 도출되기 보다는, 그 국가가 자리 잡고 있는 민감한 지리적 위치 및 주변의 더 막강한 지정 전략적 게임 참가자들의 행동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추축지대는 지리적 위치를 활용하면서 중요지역으로의 접근을 통제하거나, 중대한 게임 참가자들에게 공급되는 자원을 차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몇몇 경우 지정학적 추축은 핵심 국가 혹은 핵심지역의 방패처럼 기능하기도 한다(Zbigniew Brzezinski(1997). 김명섭 옮김(2003).

3) 브레진스키(Z.Brzezinski)는 유라시아 주변부의 3곳에서 지정학적 추축지대(Pivot area)가 형성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브레진스키의 지적에 의하면,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과 동쪽변방 그리고 남쪽변방에서 적극적인 지정 전략을 구사하는 게임 참여자들이 형성되고 있다. 서쪽 변방에서는 프랑스와 독일이, 동쪽변방에서 인도와 중국이 각각의 변방에서 적극적인 지정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유라시아 동부지역 Pivot area에서 구사되는 지정전략에는 미국과 중국의 그것이 핵심을 이룬다. 중국 중심의 세계인 팍스 시니카(Pax Sinica)가 유라시아 동부지역에서 형성될 것인가? 미국이 중국과 지정전략적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한다면, 아시아 공간에서 자신의 정치적 발판을 상실할 수도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일본과 긴밀한 유대를 통해, 중국의 지역적 야심을 차단하려는 대응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한반도의 분단과 북한 내부의 불안정을 빌미로 미국과 일본이 개입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하면서 서해와 동해를 포함하는 한반도가 지정학적 갈등무대로 진략하고 있다. 한반도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Pivot area가 되었고, 남한에 대한 미국의 통제 그리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통제는 더욱 값진 것이 되었다. 한반도의 운명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갈등 및 협력 여하에 따라 결정되어질 수 있는 수동적인 위치에 서 있다.

유라시아 동부지역 Pivot area에서 강력한 지정전략을 구사하는 게임 참가자는 미국과 중국이지만, 일본과 러시아의 지정전략이 미국과 중국의 그것에 힘을 실어주면서 Pivot area의 성격이 보다 선명해진다. 유라시아 동부지역 Pivot area에서의 갈등은 인도양에서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바다에 인접된 유라시아 주변부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남중국해~동중국해~서해~동해로 이어지면서 확산되고 있다. 북한의 정치행위를 빌미 삼아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한반도의 서해와 동해에 진출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동진 및 남진정책이 서해 및 북한의 북동부 동해에 닿을 내리게 되고, 이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공동 방어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북한의 정치행위와 한반도 정세변화에 대비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이익경쟁이 만들어 놓은 지정학적 현상이다.

2. 동해와 북한 북동부에 대한 지정학적 가치

동해는 북쪽으로 러시아의 연해주와 하바롭스크 주, 그리고 사할린 주에 둘러싸여 있고, 서쪽으로는 한반도, 동쪽으로 일본이 감싸고 있다. 동해는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 등 4개국의 주권과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으로, 이들 연안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미국의 경성권력과 연성권력이 침투되고 있는 지역이다. 환동해 국가들의 정치 및 경제적 역동성과 함께 동해에 대한 인식과 가치가 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국제정치경제의 중심축이 아시아·태평양으로 이동되면서 태평양으로 향하는 길목인 동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해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감싸고 있는 지정학적 요충지이다. 대륙세력

<http://www.worldatlas.com/webimage/countrys/>

(북, 중, 러)의 팽창정책과 해양세력(한, 미, 일)의 봉쇄정책이 동일 해역에서 충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륙 및 해양세력을 불문하고, 환동해 국가들이 동해에 자신의 이익선을 확보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환동해 국가들의 영향력 확장 경쟁이 동해 해역에서 격화되면서 동해를 포함한 태평양에 대한 지정학적 가치가 변화되고 있다. 특히,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북극해 해빙이 가속화되어 동해가 중요한 상업항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면서 환동해 국가들의 동해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와 함께, 동해의 지정학적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북한의 동부지역 항구들이 동해에 접해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심과 함께, 북한의 동해 연안에 있는 항구인 나진과 청진, 김책, 단천, 흥남, 원산 등 항구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들 항구들 중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주요 관심 대상지는 북한의 북동부 동해 연안에 있는 나진과 청진항이다. 이와 동시에 북한은 2010년 라선특별시⁴⁾를 특수경제지대로 설정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물동량을 기다리고

4) 라선특별시는 북한 북동부에 있는 항구도시이다. 기존의 라진군과 옹기군을 합쳐

있다.

나진항 부두 사용권을 선점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몽골까지 북한의 동해 항구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나서는 듯하다.⁵⁾ 북한 북동부 항구를 통해 동해를 자신들의 내해로 사용하려는 대륙세력의 세력권 확장 움직임이 미국과 일본 등 해양세력의 이익선을 위협하고 있다. 북한 북동부 및 동해에 펼쳐지고 있는 대륙세력의 영향력이 한국과 일본의 정책 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근접하게 되면서, 미국 등 해양세력의 동해에 대한 지정학적 인식이 변화되고 다.

결국,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동해와 북한 북동부에 대한 영향력 확장 및 이익선 구축 경쟁이 동해에 대한 지정학적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다. 동일 지역에 대한 경제학적 가치가 부각되면서, 지정전략을 구사하는 게임 참가자들의 게임 전략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사력 확장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 북동부 지역과 동해 연안에 대한 인식과 가치 평가에 있어서 지정학적 Pivot area로 손색이 없어 보인다.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방위력 강화 구상 및 집단적 자위권 확보 움직임에 대해 미국이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동중국해~서해~동해에 대한 해양세력의 영향력 확장 움직임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대륙세력의 대응전략 역시 보다 전투적으로 수정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한국 역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서해와 동해에서 형성될 세력권 확장 경쟁

1993년에 라진-선봉시로 개편했다. 그리고 2000년 8월에 ‘라진-선봉’의 지명이 ‘라선’으로 개칭되었다. 2005년 1월부터 ‘라선특급시’로 명명되었고, 2006년 9월부터는 라선직할시가 되었다. 그리고 2010년 1월, 라선시를 라선특별시로 지정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발표되었고,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개정하여 라선특별시를 헌법상 특수경제지대로 분류했다.

5) 몽골이 수출용 광물자원의 해상 운송을 위해 북한 항구를 임차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차히야 엘벡도르지(Tsakhia Elbegdorj) 대통령은 2012년 11월 19일 몽골을 방문한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에게 북한과의 경제협력[특히, 몽골의 광물자원 개발과 북한의 노동력 공급 영역]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항구를 임차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다. 최 의장은 몽골 측 요청에 대해 북한 역시 해상 운송과 광물자원 분야 등 양국 간 경제협력에 관심이 많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몽골은 세계 7위의 자원부국이지만 수송체계의 미흡으로 인해 그 동안 광물자원을 주로 중국과 러시아 등 인근 국가에 헐값에 판매해 왔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몽골이 북한의 항구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에 한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뒤따를 것이다. 이러한 모습이 북한 북동부와 동해에 대한 지정학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Ⅲ.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북동부 진출 현황

북한·중국·러시아의 접경지역인 두만강 유역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은 소련 해체 직전부터 시작되었다. 1991년 10월 24일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 아래 두만강개발계획(TRADP)이 출범되었고, 2005년 9월에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공공기금을 설립하는 등 추진계획을 강화해 광역두만강 개발계획(GTI, Great Tumen Initiative)으로 전환되었다.⁶⁾ GTI의 사업대상 범위는 중국 동북3성 및 내몽골, 몽골 동부 지역(Hentii, Dornod, Sukhbaatar의 3개 주), 한국의 동해안과 부산 및 울산지역, 그리고 러시아의 연해주를 포함하는 지역이다. 북한은 GTI로의 전환을 결정한 2005년의 장춘(長春) 협정에 합의하면서 프로젝트 당사국으로 남아 있었지만, 2009년 11월 핵문제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로 인해 협정에서 탈퇴했다. 따라서 현재 GTI에는 러시아, 중국, 몽골, 그리고 한국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무국은 중국 베이징에 위치해 있다(신범식 2013, 432-433). 이러한 시기를 전후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북동부 진출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1. 중국의 동진정책과 북한의 북동부

중국의 동북3성은 북한에 가로 막혀 동해 수출 로를 갖고 있지 못하다.⁷⁾ 따라서 중국 동북부 지역의 성장을 위해서 북한의 북동부 동해안을

6) 광역두만강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 홈페이지(<http://www.tumenprogram.org/>) 참조.

7) 동북3성의 하나인 요녕성(遼寧省)은 한반도 서해에 접해 있다.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함께, 중국은 동해·태평양으로의 진출로 확보를 위해 북한의 나진항에 눈독을 들여왔다. 특히, 길림성(吉林省)에서 공업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훈춘(Hunchun)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나진항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훈춘 지역에 2016년까지 100억 위안(한화 약 1조 7천억 원)을 들여 대규모 동북아 변경무역센터를 건설하기로 하는 등 중국 정부의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신범식 2013, 436), 북한으로 연결되는 교량 및 도로 건설, 압록강 대교 신설, 그리고 나진항 보수를 약속하면서 북한의 북동부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06년 10월, 중국이 대(對)북한 통상구인 훈춘시 권하(圈下) 통상구에 변방검사소(출입국관리사무소)를 설치했다. 권하(圈下) 통상구는 중·러·북 3개국 국경에 위치하며, 함경북도 라선시 원정리 통상구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위해 2007년 <육로-항만-구역의 일체화> 프로젝트를 제안하였고, 훈춘~권하~원정~나진에 이르는 도로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요녕성(遼寧省) 대련(大連)소재 창립(創立) 그룹이 2008년 10월에 북한으로부터 나진항 1호 부두 사용권을 확보하게 되면서 동해로 진출할 수 있는 뱃길을 확보했다.⁹⁾ 중국의 동북부 지역에서 북한을 거쳐 동해로 나아갈 수 있는 지정전략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2009년 8월 30일 중국 국무원에서 <창지투(長吉圖) 개발계획>을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로 비준했다.¹⁰⁾ 동일 프로젝트의 대상 지역은 길림성(吉林省)의 장춘(長春)~길림(吉林)~두만강[중국식 명칭: 도문강(圖們江)] 주변이다.¹¹⁾ <창지투(長吉圖) 개발계획>은 동북3성 개발을 위한 중국 중앙정

8) 훈춘시는 개방 도시로 지정되어 있다. 남쪽은 두만강을 경계로 북한의 라선직할시에 접하고, 동쪽은 러시아의 연해주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동해에서 15km 떨어져 있으며, 연해주의 포시에트(Posiet)와 철도로 연결되어 있다. 러시아 자루비노 항구와는 63km 떨어져 있다. 창춘-훈춘간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다.

9) 창립그룹(創立集團)은 2008년 10월 훈춘(Hunchun)시에서 나진항에 이르는 도로를 건설해 주는 조건으로 나진항 1호 부두를 10년간 독점 입차했다.

10) 중국-북한 라선지역(장지투 개발 포함) 공동 개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이종립 2013, 37-47).

11) 그 이후 창지투 개발계획은 요녕성(遼寧省)과 흑룡강성(黑龍江省) 동부, 러시아의 연해주, 북한 북동부 해안 등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확장되었다.

부의 정책적 의지를 엿볼 수 있도록 한다. 상기 개발 계획은 북한의 나진항을 중국 동북지방의 거점 항만으로 활용할 목적과 함께 준비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라선개발과 관련된 두만강유역개발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상기 개발 사업을 위해 2010년 말 현재 장춘~길림~투먼(圖們)~훈춘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전구간이 개통되었고, 장춘~길림 고속철도가 완공되었다.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사용권을 확보한 나진항에서 50여km 떨어진 훈춘을 국제적인 물류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작업이 계속되고 있다.¹²⁾

2010년 12월에는 중국이 나진항 50년 사용권과 중국 국내무역화물선의 라진항 입항, 그리고 연해 항로 통과권을 획득했다. 중국은 나진항을 통해 동해를 내해로 활용하려 하고, 한국의 속초·부산, 러시아의 자루비노·포시에트, 그리고 일본으로 이어지는 운수통로를 확보하려 한다. 그리고 2011년 4월에는 두만강에 접한 라선특별시 원정리와 동해 쪽의 라선시 나진항을 잇는 53km 구간의 도로 포장 및 확장 공사가 시작되었다. 공사가 완공되면 훈춘시~권하(圈下)~원정리~나진항이 93km 포장도로로 연결되어 중국의 동해 출구가 안정적으로 확보된다.¹³⁾

중국은 나진항에 만족하지 않고, 북한의 동해 연안을 따라 남진을 계속하고 있다. 길림성 도문(圖門)시 소재 기업인 연변해화집단(延邊海華集團)이 2012년 9월 1일 평양에서 북한항만총회사와 계약서를 체결하고 청진항 해운항만합작경영회사를 공동 설립하기로 했다. 북한과 중국은 이번 계약에서 연간 물동량 처리 능력이 700만t인 청진항 3·4호 부두를 30년간 공동 관리 및 이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북·중은 2015년까지 청진항 합작경영회사의 항구화물운송량을 100만t 이상으로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¹⁴⁾ 중국이 나진항에 이어 청진항까지 연계 되면서 동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동북3성 물동량을 동해 뱃길을 이용해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은 나진항 1호 부두 이외에 5·6호 부두 개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청진항 3·4호 부두를 사용할 수 있게

12) <http://www.kita.net/>

13) <http://article.joins.com/>

14) <http://www.bkknews.kr/>

되었다. 북한이 나진항에 이어 청진항을 중국에 개방해 주면서, 중국의 동해 뱃길 가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북한과 중국은 선봉, 나진, 청진, 김책, 단천, 흥남, 원산으로 이어지는 북한 북동부 지역 항만 가운데 나진항, 청진항을 포함해 4~5곳에서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⁵⁾ 중국은 이미 2012년 9월에 훈춘에서 라선시 원정리를 거쳐 나진항으로 연결되는 50여km의 도로를 확장 개통했고, 2013년 10월 현재에는 중국에서 북한 나진항으로 가는 관문인 훈춘시 권하(圈河)통상구와 북한 라선시 원정리를 연결하는 새로운 교량(일명 신두만강대교) 건설 공사가 준비되고 있다.

중국의 동북3성이 북한의 북동부에 더욱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으며, 양지역이 단일의 생활공간으로 변화되는 시기 역시 단축되고 있다. 연변 인터넷방송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동북지역의 길림성 길림시를 출발해 연길(延吉), 도문(圖們)을 거쳐 훈춘에 이르는 총 연장 359km의 여객 전용 고속철도가 2014년 개통될 예정이다. 현지 매체들은 시속 250km에 달하는 길림~훈춘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훈춘에서 길림성(吉林省) 장춘(長春)까지의 철도 운송시간이 현재의 3분의 1 수준인 2시간 5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길림~훈춘 고속철도가 2015년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라선 특구 개발사업 및 나진항을 통한 동해 뱃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개통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2. 러시아의 남진정책과 북한의 북동부

러시아의 남진정책은 2가지 목적이 함께하면서 추진되고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 항구를 통한 아·태 시장에서의 편입이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북한 북동부 및 동해 연안에 대한 이익선 확보기 그것이다. 첫째, 러시아는 동해 연안의 항구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시장으로 진출하려 한다. 러시아 극동지역에 있는 연해주·하바롭스크주·사할린주가 동해의 북부지역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항구들이 러시아를 아·태 국가와

15) <http://www.yonhapnews.co.kr/>

의 경제협력을 견인해 준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동해 연안에 11개 항구가 연중 운영되고 있다(P.B.Вахненко 2002). 대표적인 항구는 연해주의 Vostochniy, Nakhodka, Vladivostok, Posiet, Plastun, 하바롭스크의 Vanino, De-Kastrы, Sovetskaya Gavan, 사할린의 Kholmsk, Korsakov, Uglegorsk, 마가단의 Magadan, 캄차카의 Petropavlovsk-Kamchatskiy 등이다.

상기 항구들 중에서 포시에트(Posiet) 항(港) 개발사업이 구체화되고 있으며,¹⁶⁾ 소베츠키야 가반(Sovetskaya Gavan) 항(港)이 변화되고 있다.¹⁷⁾ 하바롭스크에서 생산된 수출용 원목은 주로 바이칼-아무르(BAM, Baikal-Amur) 철도로 소베츠키야 가반과 바니노 항구로 운송되고, 이곳에서 수출 길에 나서고 있다. 소베츠키야 가반 항은 Baikal-Amur Road의 동쪽 끝에 위치해 있으며, 지역 내 가장 큰 항구인 Vanino 항구와 근접해 있다는 장점에 힘입어 특별 경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향후 이 두 항구의 극동지역 물류센터 역할이 기대된다. 포시에트와 나호트카 항을 비롯한 러시아 극동지역 항구들이 한국·중국·일본을 비롯한 아·태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관계를 견인해 가고 있다.¹⁸⁾

-
- 16) 러시아는 포시에트항 개발과 함께, 하역능력을 2013년 9-10백만 톤, 2015년 14백만 톤, 2018년 18백만 톤까지 늘려나갈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1단계 항구 개발계획은 2012년 말까지 포시에트항을 석탄 전문터미널로 전환하는 것이며, 1번 부두(길이 290미터, 수심 14미터) 개보수, 벌크화물 처리를 위한 현대화 기술 적용, 고효율 하역장비 설치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2단계 계획으로 2013년까지 1번 부두까지의 항로(1.5km) 수심을 확보하고, 3단계 계획으로 2015년에 2번 부두 건설에 착수할 계획이다. <http://rus-vladivostok.mofa.go.kr/>.
- 17) 2008년 6월 2일 러시아 경제개발통상부는 기업유치와 지역개발을 위해 하바롭스크의 소베츠키야 가반(Sovetskaya Gavan) 항을 특별경제구역으로 지정했다. 하바롭스크 동남부 해안에 위치해 있는 소베츠키야 가반 항이 항만 특구로 선정되면서 대규모 인프라 구축작업이 준비되고 있다. 그리고 바이칼-아무르 철도의 종착지라는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선박수리, 수산물 가공관련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http://rus-vladivostok.mofat.go.kr/>.
- 18) 2013년 4월 15일자 러시아 인터팩스(Interfax)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캄차카 지역의 페트로 파블롭스크 캄차츠키(Petropavlovsk-Kamchatsky) 항구는 일본산 자동차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어 자동차 수입을 불허했다. 현지 세관에 따르면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차량은 <혼다 CR-V>이며, 일반기준치의 4배를 초과한 방사선량이 검출되었다. 그리고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캄차카 세관에서는 일본에서 신고 온 34개 제품에서

동해 연안에 있는 러시아 항구들이 러시아를 아·태 국가로 거듭나게 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극동지역 항구들을 개보수하고 있다. 사실, 극동지역 항구들이 노후화된 상태에 있어 적정수준의 화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상호 합의한 수준의 물량조차도 처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환동해 경제관계에 부정적으로 와 닿는다. 따라서 아시아·태평양 국가와의 경제관계 활성화를 위해, 러시아 중앙정부는 극동지역 항구들에 대한 개보수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러시아 환경청은 많은 러시아 항구들이 폐기물 처리시설이 없거나 노후화되어 있어 항만 해양 오염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거대 석탄터미널이 등장하면서 공기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되기도 한다.

둘째, 북·중 관계의 긴밀화와 이에 따르는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약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과의 경제협력(남북한 3자 협력 포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이영형 2012). 2011년 8월 24일 울란우데시 외곽에서 개최된 북·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대북 원유지원과 라선 경제무역지대에 대한 투자확대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남·북·러 가스관 건설사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물론, 러시아는 철도연결, 가스관 부설, 송전선 건설 등을 패키지로 묶는 경제협력을 북한 측에 제시했다(『로동신문』, 2011년 8월 15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은 실무진을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1년 9월 28-30일 데니스프(А.И.Денисов) 외무부 제1차관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북측 인사들과 회동을 갖고, 러시아에서 출발해 북한을 거쳐 한국으로 이어지는 가스관 건설과 유사한 노선의 송전선 건설, 그리고 철도연결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БЮЛЛЕТЕНЬ от 30 сентября 2011, 3).

러시아의 북한진출과 경제협력에서 걸림돌로 작용한 것은 양자간 외채 문제였다. 따라서 러시아는 외채문제를 해결하면서, 북한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가고 있다. 2012년 9월 18일자 『러시아 신문』은 РИА Новости의 보도 자료를 인용해, “러시아와 북한이 110억 달러의 채무 조

방사선이 검출되어 모두 수입을 금지시키기도 했다.
<http://www.interfax-russia.ru/>.

정 협정에 서명했다.”¹⁹⁾고 밝혔다. 재무부 차관인 스토르차크(С.Сторчак)의 발표에 따르면, 9월 17일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부채가 110억 달러로 조정되는 협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전체 채무의 약90%를 1차로 감액해 주고, 10억 달러가 조금 넘는 잔여 채무는 북한에서 실시될 교육, 보건, 에너지 등 공동 프로젝트 실현 영역에서 <원조 전환 부채>로 사용하도록 결정되었다(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18.09, 2012). 잔여 채무가 <원조 전환 부채>로 사용되기 때문에, 북·러간 공동 프로젝트가 추진될 가능성이 더 한층 높아졌다. 러시아가 남·북·러 3자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원조 전환 부채>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2013년 9월 22일, 러시아 극동의 하산에서 두만강을 건너 북한의 라진항까지 연결되는 철도 개통식이 북한의 라선공업단지에서 개최되었다. TSR과 TKR을 연결하는 거대한 프로젝트 사업의 일부이기도 하다. 라진-하산 간 철도 연결공사는 지난 2008년 10월 착공식이 열렸지만, 2008년 말부터 시작된 국제금융위기로 어려움에 직면했다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재개되었다. 러시아는 지난 5년 동안 자체 투자를 통해 54km 구간에서 낡은 철로를 교체하고 정차 역들을 보수 정비했다. 또 철길의 폭이 서로 다른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열차를 통과시키기 위해 선로교환기를 설치하는 공사도 진행했다. 야쿠닌(В.Якунин)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은 기념식에서 새로이 개통된 철로가 석탄 등 물자교역에 이용될 것이라고 했다. 야쿠닌(В.Якунин) 사장은 이 구간 철로가 TSR과 TKR의 일부라며,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최단 루트가 될 것이라고 했다.²⁰⁾ 그리고 야쿠닌은 북한 나진항에 석유터미널 개발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²¹⁾

19) Россия и КНДР подписали соглашения об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долга на 11 млрд долларов.

20) <http://ria.ru/economy/20130923/>; http://rus.ruvr.ru/news/2013_09_22

21) http://korean.ruvr.ru/news/2013_09_23/243841039/

IV. 동해의 지정학적 성격. 갈등의 무대?

1.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지정학적 구획

유라시아 동부지역 동해 연안에서 전개되고 있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이익선 확보 경쟁이 동일 지역에 대한 지정학적 성격을 추축지대(Pivot area)로 격상시키고 있다. 북한의 북부지역으로 진출하고 있는 대륙세력의 동진 및 남진정책과 이에 안보위협을 느낀 해양세력의 대응정책이 환동해에서 충돌되는 모습을 보인다. 중국의 북한 북동부 진출에 따라 북한과 동해 해역에서 중국의 이익선이 설정되는 듯하고, 이에 러시아의 남진 정책이 가해지면서 대륙세력의 이익선이 보다 견고화되는 듯하다. 대륙세력의 동진 및 남진정책과 해양세력의 대응 노선이 동해에서 충돌되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

한반도와 동해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눈에 띄게 증대되고 있다. 2011년 8월 4~8일 중국의 북양함대 소속 군함 2척이 북한 원산항에 입항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박종철 2012, 95). 중국이 기도하고 있는 동해로의 출해 통로 확보는 경제적 및 정치적 의미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성격을 지닌다. 중국의 해군력이 자유롭게 동해로 진출하게 될 경우, 유라시아 동부지역 Pivot area에서의 군사안보 상황이 동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갈등 축을 형성하게 될 수도 있다. 중국의 동해 진출은 인접한 러시아는 물론 일본과 한국, 그리고 미국의 근심거리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환동해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진항이 기본적으로 경제적 의미를 가진 항구이지만, 한반도 유사시 군사력 전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러한 우려를 증폭시킨다(원동욱 2011, 59; 신범식 2013, 451).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과 중국 및 러시아의 세력권 확장 정책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이익선 확보 경쟁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과정에서 연합군사훈련이 실시되었다.²²⁾ 2013년 3월 18일부터 한미 연합해군의 기동훈

22) 2012년 4월 중·러 해군은 서해 해역에서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하고 미국 해군의 진입에 대응하는 <해상연합-2012> 훈련을 실시했다. 연합훈련은 한·미, 미

련이 동해에서 실시되었다. 연합훈련은 한미 양국군의 전투 준비태세와 연합차원의 상호 운용성을 증진함과 동시에 연합전력의 작전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2013년 7월 5일부터 7월 12일까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Vladivostok) 근해에서 <해상연합-2013>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일본과 주일 미군을 겨냥하는 동시에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경계 태세를 강화하는 한·미·일을 견제하려는 목적에서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훈련 장소가 러시아 해역이긴 하지만 훈련 규모가 크고 또한 일본과 가까운 동해라는 점에서 해양세력의 이익선이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의 공군이 동일한 시기인 8일부터 12일까지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서쪽 바다에서 중·러 측 훈련을 감시하기 위한 연합훈련에 들어갔다. 미·일 연합훈련 지점은 홋카이도 서부지역으로 중·러 연합훈련 지점에서 불과 600km 떨어진 곳이다.²³⁾

해양세력의 이익선 확보 노력은 계속되었다. 2013년 10월 3일, 미국과 일본이 도쿄에서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인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대륙세력의 남진 및 동진정책에 대한 해양세력의 이익선 확보 차원에서 회의가 이루어진 듯하다. 상기 공동성명에서 집단적 자위권²⁴⁾ 행사를 포함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방위력 강화 구상을 미국이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²⁵⁾ 양국은 일본 및 주변지역에서 유사시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 등을 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작업을 1997년 1차 개정 이후 16년 만에 착수하여 2014년 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다.²⁶⁾ 개정될 가이드라인에

· 일 군사협력관계에 대한 중국·러시아의 무력시위 성격이 짙다. 美태평양함대의 군사훈련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23) http://www.minjokcorea.co.kr/sub_read.html?uid=10679

24)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5)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재검토,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국가안보전략 수립, 방위예산 증액 및 신방위대강 작성 등 현재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안보강화 방안들에 대해, 미국은 이러한 노력을 환영하며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의지를 밝혔다.

26) 가이드라인이 1978년 처음 제정됐을 때는 당시 소련의 일본 침공을 저지하기 위함이었다고 1997년 1차 개정 때는 북한의 침공 등에 따른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미군의 후방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틀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제정과 1차 개정은 모두 미국이 요구했다. 일본의 요구에 의해 착수하게 된 2차 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일본에게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지만, 아베 총리가 이러한 헌법 해석 문제를 바로 잡아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번의 합의는 미국을 등에 업고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는 일본과 군비축소 기조 속에 동맹국인 일본에 아·태지역 방위와 관련한 역할 일부를 위임하려는 미국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기에 가능했다. 회담에 앞서 열린 칙 헤이글(Chuck Hagel) 국방장관과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간의 양자회담에서, 헤이글 장관은 중·일이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가 일본의 시정권 아래 있으며,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이라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연합뉴스』 2013년 10월 3일). 금번의 회동에서 미·일은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 강화라는 총론에 대해서는 합의했지만, 각론을 담은 가이드라인 개정 협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수 있다. 국제현안에서 중국과 협의해야 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을 자극해 동중국해~서해~동해로 이어지는 해역에서 대륙세력과 지정학적 충돌 현상을 피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이익선 확보 경쟁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대륙세력인 중국의 성장 및 동진정책, 그리고 러시아의 아시아 중시정책 및 남진정책이 구체화되면서 냉전기에 묵시적 동의하에 구획된 서해 및 동해 분단선이 요동치는 듯하다. 기존의 동해 분단선을 중심으로 북쪽지역은 대륙세력이 지배해 왔고, 남쪽 지역은 해양세력이 지배해 왔다. 그러나 대륙세력의 동진 및 남진정책으로 인해, 해양세력이 서해와 동해지역에 구축해 놓은 기존의 이익선이 불안해 지고 있다. 동해에서 펼쳐지는 대륙세력의 지정전략이 한반도 휴전선에서 일본의 홋카이도(北海道) 북부지역까지 펼쳐진 기존의 이익선을 남쪽으로 밀어내고 있

정은 일본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로 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과의 유사 사태시 미일 공동대응 방안을 핵심적으로 담게 될 전망이다. 현재 가이드라인은 평시와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사태, 한반도 및 중국-대만 간에 일어난 위기 등을 상정하고 있다. 그런 만큼 센카쿠를 중국인이 점거하거나 중국 선박이 주변 해역에 장기간 머무르는 등 '무력공격'보다 낮은 수준의 사태 때 양국의 대응 방안을 새롭게 가이드라인에 담는 것이 일본의 목표로 알려져 있다(『연합뉴스』 . 2013년 10월 4일).

기 때문이다. 대륙세력이 기존의 동해 분단선을 남으로 확장시키고, 이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해양세력이 맞대응하면서 동해의 지정학적 성격이 변화되고 있다.

2. 대륙 및 해양세력 블록내의 내재적 갈등

북한의 북동부와 동해에서 발생했거나 형성될 수 있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블록 내부의 내재적 갈등은 2가지 범주에서 찾아진다. 북한 북동부 지역으로 향하는 중국의 체계적이며 지정학적 접근에 대한 러시아의 안보 불안과 이에 따르는 영향력 확장 경쟁이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해양세력인 한국과 일본 간의 동해 명칭 문제, 독도 영유권 논쟁, 그리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둘러싸고 형성되는 갈등 상황이다. 이러한 블록 내부의 갈등 상황이 동해의 지정학적 성격을 변화시키는 핵심 요인은 아니지만, 동일 지역의 정치 환경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중국의 동진정책에 대한 위기의식이 러시아로 하여금 보다 체계적인 남진정책을 준비하도록 했다. 두만강 지역 개발 움직임이 시작된 1990년대부터 북한 북부지역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관심이 양자간 경쟁과 마찰을 예고하고 있었다(B.A.Бурлаков 2007). 중국의 동진정책과 러시아의 남진정책이 북한의 라선 지역을 중심으로 경쟁 및 갈등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러시아의 남진정책은 중국의 동진을 견제하는 성격이 강하다. 2002년 8월의 블라디보스톡 북·러 정상회담에서 푸틴은 철도연결 사업을 최우선 의제로 내세웠다. 한반도에서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사업이 실현 단계로 발전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철도연결 사업을 중국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리고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을 견제하면서 포화상태의 극동지역 항구를 대체할 새로운 항구의 필요성에 따라 북한의 북동부 지역 및 나진항 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 왔다.

2005년 훈춘시가 북한 원정리에서 나진항까지 도로를 건설해 주는 대가로 나진항 3호 부두와 건설 예정인 4호 부두를 50년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얻으려 했지만, 2006년 북핵 위기로 성사되지 못했다. 중국의 움직임에 맞서 러시아는 2006년부터 나진~하산 철도연결 및 나진항 개발 논의를 본격화하여 2007년 11월 북한과 합의에 도달했다. 러시아는 2007~2008년에 한국 및 북한과 각각 물류 및 나진항 개발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러시아가 나진항 3, 4호 부두의 사용권을 확보했다. 2008년 10월 나진-하산 철도 및 나진항 개건 착공식이 시작되었다.²⁷⁾ 중국은 더욱 신중한 접근을 통해 나진항 사용권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요녕성(遼寧省)의 연해경제벨트계획과 길림성(吉林省)의 창지투 개발계획을 2009년 7월과 8월에 각각 발표하고, 중국 국무원이 2009년 8월 30일 북한에 투자를 약속하는 내용의 <중국 두만강지역 합작 개발계획 요강>을 승인했다(박동훈 2010). 그리고 2009년 10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북한을 방문했고, 중국이 나진항 1호 부두의 운영권을 확정했다. 나진항을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의 경쟁이 자칫 양국관계를 소원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으로 나아갔다.²⁸⁾

러시아의 북한 북동부 진출은 북·러간 철도연결과 그러한 사업의 지정학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러시아의 하산(Hassan) 역에서 북한의 라진으로 연결되는 철도 개통식이 2013년 9월

27) 2007년 11월 22일자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북·러 양국은 북한의 라진항과 러시아의 하산(Hassan)역을 연결하고 라진항을 개건하는 사업에 합의했다. 북한의 라진항 운영에 필요한 전력제공 방안과 하산과 라진간 철도연결 문제를 북한과 협의하기 위해 러시아의 인테르 라오 예에에스(INTER RAO UES) 회사 대표단이 2008년 1월 26일 평양을 방문했다(『조선중앙통신』, 2008년 1월 26일). 그리고 주식회사 <러시아 철도> 대표단이 2008년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평양을 방문했다. 양국 철도기관은 하산~라진사이의 철도와 라진 항 개건에 착공하기로 했다. 양국의 철도기관은 라진항에 부두를 건설하고, 하산~라진사이의 철도를 개건하여 시베리아횡단철도를 통한 국제화물 증계수송망 건설을 담당하게 될 합영기업을 창설하기 위한 법적·기술적 문제들에 대해 합의했다(『로동신문』, 2008년 3월 21일).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8년 10월 4일 라진~하산 철도 및 라진 항 개건 착공식이 조로 친선각 앞에서 진행되었다(『로동신문』 2008년 10월 5일).

28)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2009년 9월 23일 뉴욕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메드베제프 대통령을 만나 <중국 동북부와 러시아 극동 및 시베리아지역 협력 개발계획 요강 2009-2018>을 제시하면서 러시아와의 협력방안이 구체화되었다. 이와 함께, 중국의 북한 북동부 진출에 따르는 러시아 측의 반발을 무마시켰다(신범식 2013, 443-444).

22일 실시되었다. <러시아의 소리> 방송은 완공된 철도로 러시아 석탄이 운송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러시아는 북한의 동해 연안을 따라 한반도 철도를 연결하려 한다. 러시아의 의도는 철도연결에만 만족하지 않는다. 철도연결을 토대로 북한의 북동부에 안착하고, 여기에서 다양한 협력 사업을 개발 및 구체화하려 할 것이다. 러시아가 하산에서 두만강을 건너 북한의 라진항까지 연결되는 철도 개통식을 서두르면서 나진항에 정착하려는 이유는 여러 곳에서 찾아지겠지만, 중국의 동진정책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내재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최소한 자신의 극동지역과 국경을 접하는 북한의 북동부와 동해에 자신의 이익선을 보다 안정적으로 설정하려는 지정학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중국의 북한 북동부 진출은 러시아에게 부담으로 와 닿는다. 따라서 북한과 미온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던 러시아의 정책이 보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수정되었다(문흥호 2011, 199-225; B.C.Кречетова 2012, 8-33; 신범식 2013, 427-463). 이러한 상황에서 중·러간 갈등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중·러 양국이 해양세력에 대응하는 차원의 정치군사 관계에서는 협력 틀을 유지하겠지만, 북한의 북동부 내륙 및 동해연안에서 형성될 이익선 확보 경쟁에서는 불편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는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에너지, 전기, 식량 등을 전면에 내세우며 북한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려 노력하고 있다(Beom-Shik Shin 2011). 중국의 공세적인 동진정책에 비해 러시아의 남진정책이 열세인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전력, 농업 잠재력 등 강점을 부각시켜 남진정책을 추진한다면 중국의 영향력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의 남진정책이 한반도 2개 정부를 포함하는 전략으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북극항로를 활용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환동해 국가들이 러시아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북한 역시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 확장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동진정책보다 러시아의 남진정책을 선호할 수도 있다. 이러한 환경 변수가 북한 북동부와 동해를 둘러싼 대륙세력 내부의 갈등관계를 더욱 더 자극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둘째, 한국과 일본의 갈등구조가 동해의 지정학적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이 동해와 독도에 대한 영고권 문제를 놓고 인식차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움직임이 한국과 일본의 마찰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논쟁을 예외로 하더라도, 동해에 대한 명칭 문제가 지구촌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제수로 기구(IHO,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총회²⁹⁾가 바다의 국제적 명칭을 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를 발간한다. 1929년의 초판에 동해가 <Japan Sea>로 표기되면서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했다. 1937년(2판)과 1953년(3판)에 개정되었지만, 일본해 단독 표기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제무대에서 Japan Sea가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1991년 한국의 유엔 가입을 계기로 바다의 명칭을 <동해>로 표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³⁰⁾ 1992년 8월의 유엔 지명표준화회의(UNCSSG)와 IHO 총회에서 East Sea가 동해의 공식 영문 명칭임을 주장하면서, 동해와 일본해를 국제적으로 병기(併記)할 것을 요청했다. 그 이후 한국의 그러한 주장은 계속되었다. IHO 총회에서 개정될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제4판에서 동일 해역에 대한 명칭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를 놓고 한·일간 외교 신경전이 계속되었다. 한국에서는 동해가 역사적으로 동양해(Oriental Sea) 또는 한국해(Sea of Korea)로 불러 왔으므로 동해(East Sea)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지만 조선동해(East Sea of Korea)로 표기하기를 원한다. 반면에 일본은 일본해(Japan Sea)가 19세기부터 국제적으로 통용된 이름이며, 이를 그대로 사용할 것을 주장한다.³¹⁾ 바다의 명칭 문제를 둘러싼 외교 논쟁에서, 일본은 <일본해> 단독 표기에 기초해서 합의된 명칭 내용을 첨가할 것을 주장하고, 한국은 <동해·일본해> 병기(併記)를 주장해 왔다.

29) 국제수로기구(International Hydrographic Conference) 총회는 5년마다 개최되며, 총회에서 국제수로기구(IHO)의 활동 지침과 제반 행정·기술 사항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IHO는 항해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1921년 설립된 정부간 국제기구이다.

30) 한국에서는 동해(東海), 북한에서는 조선동해(朝鮮東海), 일본에서는 니혼카이(にほんかい, 日本海), 러시아에서는 야폰스코예 모레(Японское море, 일본해), 중국에서 일본해로 불러 왔다. 미국과 영국 역시 일본해로 명명해 왔다.

31) <http://ko.wikipedia.org/>

일본 외무성과 한국 외교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지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이 2000년 60개국의 지도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한 지도는 392점의 지도 중에 2.8%인 11점에 불과했지만, 2005년 일본 외무성이 같은 방식으로 행한 67개국 331점의 지도 조사에서는 10.8%에 이르는 지도가 병기하였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2006), 43-44.). 이 중 61개국 116개의 상업용 지도 중 <동해·일본해> 병기 비율은 18.1%에 달했다. 2007년 상반기, 한국의 외교통상부가 세계 75개국에서 발간된 353개 지도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353개의 지도 중 <동해>를 단독 표기한 지도는 단 한 개도 없었고,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경우는 전체의 74.2%, <동해·일본해>를 동시에 표기한 경우는 23.8%, 무표기가 2%였다. 그리고 2009년(한국조사)에는 28.07%가 <동해·일본해>를 병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²⁾ 동해를 사용(병기)하는 일련의 조사를 종합해 보면, 세계지도 제작사의 <동해·일본해> 병기 비율이 2.8%(2000)에서 18.1%(2005)로, 23.8%(2007), 그리고 28.07%(2009)로 증가되고 있다.

2010년에 열린 미국지리교육학회(The National Council of Geographic Education: NCGE)와 전미지리학회(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AAG) 연례회의에 참석한 89명의 미국내 대학 및 중등학교의 지리학 관련 교수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무작위 설문조사 자료(윤옥경·최종남 2011, 86-103)는 동해에 대한 미국 학계의 관심을 보여준다. 일본해(Japan Sea)가 표현된 지도를 본 미국 지리교육자가 동해(East Sea)로 나온 지도를 본 미국 지리교육자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는 지도 및 지도집 뿐만 아니라 각종 지리 교재에서 ‘일본해’가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윤옥경·최종남 2011, 94). 그리고 미국 지리교육자의 12.3%만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아는 반면에 58%의 미국 지리교육자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그리고 24.6%의 미국 지리교육자가 ‘동해/일본해’ 병기에 관련된 한·일간 쟁점 사항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이해했고, 43.2%는 동해 병기에 관해서 전혀 지식이 없었다(윤옥경·최종남 2011,

32) <http://eastsea.nori.go.kr/>

95).

한국 정부는 2012년 4월 개최될 제18차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동해 표기를 채택할 수 있도록 활발한 외교전을 펼쳤다. IHO는 총회를 앞두고 실무그룹을 운영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2009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활동 기한을 정해 놓고 관련 자료를 수집 및 논의를 계속해 왔으나,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남·북한이 동해와 일본해의 병행 표기를 주장하고, 다수의 국가가 분쟁해역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를 지지해 왔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선진국들은 일본해 단독 표기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미국은 단일 명칭 원칙(single name policy)을 표방해 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2012년 4월 23~27일 IHO 총회가 지중해 연안의 모나코(Monaco)에서 개최되었다. 총회에 앞서 IHO 실무그룹(Working Group)이 지난 2년여 동안 동해 표기 문제를 논의한 결과 ‘어떠한 합의점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총회가 개최되었다.

2012년 4월 개최된 IHO 총회에서 한국대표단은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신판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할 것을 주장해 왔지만, 한국 정부의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다. 북한도 ‘조선 동해’라는 이름의 표기 안을 내면서 기본적으로 한국과 공동보조를 취했다. 일본은 동해 표기 문제로 「S-23」 신판 발간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신판 발간을 서두르기 위해서 1953년 발간한 「S-23」 3판을 기준으로 하여 합의되는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해 나가자는 안을 제시했다. 의장이 일본 측 제안을 논의할 것인지 여부를 표결에 부쳤으나, 일본 이외에는 어떠한 회원국도 지지하지 않았다.³³⁾ 일본의 제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³⁴⁾ 그동안 미국과 영국이 IHO 실무그룹 논의 과정에서 ‘동해 병기’에 소극적 입장을 보인 바 있었으나, 2012년 4월 총회에서 일본 측 제안을 지지하지 않은 것은 최소한 중립적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장동희 2012, 236).

33) 일본 제안에 대한 논의는 찬성 1(일본), 반대 4(한국, 중국, 북한, 쿠바), 기권 62, 불참 1(독일)로 부결되었다(장동희 2012, 235).

34) 따라서 지난 2002년과 2007년 총회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이 문제가 또 다시 2017년 차기 IHO 총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참고로, 현행 해도집은 지난 1953년 발간된 이후 59년 동안 개정판을 내지 못하고 있다.

동해 지명 표기를 놓고, 해양세력간 미묘한 갈등 양상이 보여 진다. 한국과 일본이 당사자이지만, 미국과 영국이 어느 한 쪽을 지지하지 못하는 입장에 있다.³⁵⁾ 해양세력들 간의 대립과 반목을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황에서 미국과 영국은 일본 측의 입장에서 다소 벗어나 중립을 지키는 듯 하고, 중국(북한 포함)은 한국 측의 입장에 더 가까이 서 있다. 러시아 역시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는 듯하다. 러시아가 한국 측의 입장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선회된다면, 일본을 제외한 환동해 국가 모두가 한국의 입장에 서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조성된다면, 대륙세력은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해양세력은 일본의 입장에서 중립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동해가 대립과 갈등 상황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동해 문제를 놓고 한국과 일본이 마찰을 빚을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이다. 2013년 10월 3일, 미국과 일본이 도쿄에서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인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은 아·태지역 방위를 위한 동맹국의 기여확대 측면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 미국의 지지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가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한국 및 중국의 안보 상황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는 중·일간 센카쿠 열도 문제, 러·일간 쿠릴열도 문제, 북한의 정치행위에 대한 해양세력의 대응 문제가 핵심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움직임이 구체화될 경우, 중국 등 대륙세력 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관계 악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정치행위에 대한 해양세력의 대응 문제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포함되면서, 그 파장이 동해에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집단적 자위권 문제가 미국과 일본 등 해양세력이 동아시아 해양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반도의 서해는 물론 동해의 지정학적 의미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하다. 한국 정부가

35) 미국과 영국의 중립적인 입장은 세계 언론, 각국 지도 제작사, 출판사 등에서 <동해>와 <Japan Sea>를 병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원칙적인 수준에서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일본의 자위권 움직임이 구체화될 경우에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V. 끝맺는 말

중국과 러시아의 동진 및 남진정책은 서해 및 동해에서 자신들의 이익선 확보는 물론, 태평양에 대한 정치 및 경제적 영향력 확장에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자신들과 국경을 접하는 북한의 북동부 나진항 선점을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다. 중국의 북한 북동부 진출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 증대는 물론, 북한을 통해 동해로 진출할 수 있는 해상 통로를 확보하는데 있다. 북한의 동해 연안에 있는 항구들을 자신의 내해로 사용하려 한다. 러시아 역시 북한의 라선과 연해주의 하산을 잇는 철도 개보수 작업과 함께 나진항 보수 공사에 들어갔다. 러시아는 나진항을 극동지역의 물류기지로 이용하면서, 장기적으로 대북 영향력 확대, 한반도 철도연계 사업, 동(東)시베리아 에너지 자원의 수출 중개 기지 등으로 활용하려 한다.

동해는 일본과 미국의 지정전략이 침투되는 지역이다. 미국과 일본의 환동해 지정전략이 북한의 정치행위에 대한 대응전략 차원에서 추진되고 지적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과 러시아 등 대륙세력의 영향력 확장에 대한 해양세력의 봉쇄정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보 움직임에 대해 미국이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는 현상 역시 중국 등의 영향력 확장에 해양세력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지정전략에 다름 아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정립된다면, 대륙세력의 대응 역시 강경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환동해 및 서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해양세력의 대응전략에 한국이 참여하고 있지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서는 한국의 대응전략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환동해 정치 환경을 지정학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동해 지역이 분쟁 지역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북부지역의 동해가 대륙세력에 의해 점령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와 닿는다. 북·중·러

3국의 국경지역 통합 경제권 출현, 중국의 동해 출해권 확보 등이 한국을 비롯한 해양세력에게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해양세력의 대응 역시 보다 긴밀해 지고 있다.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지정전략이 동해를 상하로 양분시키고 있다. 그리고 양분된 상부 지역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이권경쟁이 동해의 지정학적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고, 양분된 남부지역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갈등관계가 형성될 수 있게 되었다.

통일 한반도를 준비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북동부 및 동해 항구들에 대한 지배권을 중국과 러시아에 넘겨주는 그러한 상황을 차단하는 문제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과 러시아의 해군력이 동해로 진출한다면, 한국의 안보전략이 근본적으로 수정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의 북동부 지역을 관리하기 전에 한국이 북한의 북동부 지역 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전략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 정부가 환동해 국가들과 함께 북한의 북동부 개발 과정에 참여하면서, 대륙세력이 환동해 북부지역을 독점하는 그러한 상황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참여하는 환동해 안보협의체 구성 역시 필요해 보인다. 환동해 안보협의체 구성은 러시아 극동지역, 중국의 동북지역, 그리고 북한의 북동부 및 나진항 개발사업 등을 서로 연계시킬 수 있는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협력 사업에 일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이 가미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이 러시아와 중국의 동해 진출을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이 일본의 재무장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참여하는 환동해 안보협의체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을 화해시키는 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동해가 평화의 유람선을 실어 나르는 뱃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 문홍호(2011).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과 북한.” 『중소연구』 제35권. 제3호.
- 박동훈(2010). “두만강지역개발과 국제협력: 중국 ‘창지투 선도구’ 건설의 국제환경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제57호.
- 박종철(2012). “중국의 대북 경제정책과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62호.
- 신범식(2013). “북-중-러 접경지대를 둘러싼 초국경소지역 개발협력과 동북아시아 지역정치.” 『국제정치논총』. 제53집. 제3호.
- 원동욱(2011). “북중경협을 빛과 그림자: ‘창지투 개발계획’과 북중 간 초국경 연계개발을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제13집. 제1호.
- 윤옥경·최종남(2011). “동해와 독도 지명의 효과적인 해외 홍보를 위한 기초 연구.” 『영토해양연구』. 제2권. 겨울.
- 이영형(2006). 『지정학』. 서울: 엠에드.
- 이영형(2012).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서울: 통일연구원.
- 이종립(2013). “중·북 라선지역 공동개발 및 대북정책,” 2013 HK International Conference <East Sea Rim Network and Institutionalization>(14 November, 2013).
- 장동희(2012). “동해 표기: 제18차 국제수로기구 총회(IHC)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 『영토해양연구』. 제3권. 여름.
- Z.Brzezinski(2003). 『거대한 체스판. 21세기 미국의 세계전략과 유라시아』. 김명섭 역. 서울: 삼인.
- Shin, Beom-Shik(2011). “Russia’s Return to Asia: How should South Korea Respond?.” EAI Issue Briefing No. MASI 2011-09 (December 2011).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2006). A Historical Overview of the Name “Sea of Japan“.
- В.А.Бурлаков(2007). Проект <Туманган> и Игра Геополитических Интересов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в 90-е Годы XX В

ека. Владивосток: ВГУЭС).

Р.В.Вахненко(2002). География морских порт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аука.

В.С.Кречетова(2012). "Мероприятия расширенной туманганской инициативы." Пространственная Экономика No. 1,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БЮЛЛЕТЕНЬ от 30 сентября 2011.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18.09, 2012.

『로동신문』, 2008년 3월 21일.

『로동신문』, 2008년 10월 5일.

『로동신문』, 2011년 8월 15일.

『조선중앙통신』, 2007년 11월 22일.

『조선중앙통신』, 2008년 1월 26일.

『연합뉴스』, 2013년 10월 3일.

『연합뉴스』, 2013년 10월 4일.

<http://article.joins.com>. (2013년 9월 30일 검색일)

<http://eastsea.nori.go.kr>. (2013년 10월 7일 검색일)

<http://ko.wikipedia.org>. (2013년 9월 30일 검색일)

http://korean.ruvr.ru/news/2013_09_23/243841039. (2013년 10월 1일 검색일)

<http://ria.ru/economy/20130923>. (2013년 9월 24일 검색일)

http://rus.ruvr.ru/news/2013_09_22. (2013년 9월 24일 검색)

<http://rus-vladivostok.mofat.go.kr>. (2013년 6월 28일 검색)

<http://rus-vladivostok.mofa.go.kr>. (2013년 6월 30일 검색)

<http://www.bkknews.kr>. (2013년 10월 1일 검색)

<http://www.interfax-russia.ru>. (2013년 9월 10일 검색)

<http://www.iybrb.com>. (2013년 9월 30일 검색)

<http://www.kita.net>. (2013년 9월 30일 검색)

http://www.minjokcorea.co.kr/sub_read.html?uid=10679. (2013년 10월 7일 검색)

<http://www.tumenprogram.org>. (2013년 10월 24일 검색)

<http://www.voakorea.com/content/article/1754010.html>. (2013년 9월 29일
검색)

<http://www.yonhapnews.co.kr>. (2013년 9월 30일 검색)

| 논문투고일 : 2013년 11월 03일 |

| 논문심사일 : 2013년 11월 25일 |

| 게재확정일 : 2013년 12월 16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0, No. 3 (2013)

Chinese and Russian advance to the northeastern part of North Korea and the geopolitical meaning of the East Sea

Yeoung-Hyeong Lee

(Kyonggi Univ.)

This aims to interpret the conflict structure of the East Sea in a geopolitical standpoint. The Chinese-eastward and the Russian-southward advance policies are to set their benefit lines in the northeastern part of North Korea and the East Sea and to control and manage the East Sea through North Korean ports. Against the movement of continental powers, countermeasures of marine powers are strongly implemented.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American and Japanese geopolitical strategies are implemented to react to North Korean political actions. However, they are, in fact, blockade policies of marine powers against the expansion of political actions of continental powers. American support for Japan to secure the right for self-defense collectively is acknowledged as a geopolitical strategy with which marine powers jointly react to the expansion of influence of continental powers.

China and Russia are competing with the issue of controlling the northeastern part of North Korea and ports along the East Sea. China advances to the northeastern part of North Korea in order to secure the exit to the East Sea. China intends to use the East Sea of North Korea as their inland sea. As Russia is threatened by this, they actively started the railway connection to North Korea and repair

work of the Najin port. Russia intends to use Najin port as their logistics base.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which are marine powers, turn the East Sea into a stage of conflict. The conflict structure arising from the place name of the East Sea, the dominium of Dokdo, and the Japanese execution of collective self-defense right may change the geopolitical characteristics of the East Sea.

The geopolitical characteristics of the East Sea have been changing. The geopolitical strategies of continental powers and marine powers are dividing the East Sea into two and the divided marine spaces may be divided again. In the upper part of the divided space, the 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Russia on rights may make the geopolitical characteristics of the East Sea complex. Also, in the southern part of the East Sea, the conflict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may change characteristics of the East Sea. Thus, it is required to build the East Sea rim security consultative group with the leading participation of South Korea.

Key words: Eastward Extension Policy of China, Southward Extension Policy of Russia, Northeastern part of North Korea, Geopolitical meaning of the East Sea, East Sea rim security.